

‘뛰고 또 뛴’ 이청용…“괜찮은거야?”

지난 2년간 리그·대표팀 강행군
코일 감독 “체력 소진될까 걱정”
“청용은 볼턴의 축복…보호 필요”

“이청용의 체력 소진이 걱정된다.”
볼턴 원테라스의 오언 코일 감독이 팀의 오른쪽 윙어 이청용(22)의 체력 소진을 걱정했다.
코일 감독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지역 신문 볼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청용이 지난 2년간 강행군을 하고 있다. 월드컵 종료 이후 약 3주간 쉬었지만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그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용은 2009년 볼턴에 입단한 이후 휴식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2009~2010시즌 볼턴 소속으로 총 44경기에 출전했다. 시즌 도중에는 A매치 출전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시즌 종료 후에는 남아공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충분히 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월드컵 종료 후 팀의 배려로 약 3주간 한국에서 휴가를 보낸 청용은 곧바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하는 등 2010~2011시즌 7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시즌 도중 A매치 출전을 위해 2차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등 지난 2년간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코일 감독은 “지난 15개월간 이청용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충분한 휴식기간이 없이 힘든 과정을 보냈다. 우리의 많은 기대가 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지만 이청용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코일 감독은 최근 영국 북서부지역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이청용의 기량에 대해

극찬했다. 그는 “이청용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을 때 팀 밖에 있어 그의 진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며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췄는지 알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는 이청용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고,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일전을 마치고 13일 영국으로 떠난 이청용은 팀에 합류해 16일 열리는 스토크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를 준비한다. 이청용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도움 2개를 기록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언니들의 귀환…KLPGA가 뜨겁다!

정일미·김주미 등 美투어 접고 컴백
신구 세대간 새로운 경쟁구도 기대

해외에서 뛰던 스타들의 컴백으로 내년 KLPGA 투어에 더욱 뜨거운 우승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14일 미 LPGA 투어에서 활약해온 정일미(38·엔프리스시)와 김주미(26·하이트), 송아리(24), 이정연(31)이 11월 16일부터 열리는 2011 KLPGA 정규투어 시드순위에 출전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진주(27·비씨카드), 임성아(26·현대스위스저축)에 이어 LPGA 스타들의 컴백이 잇따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KLPGA 투어는 10~20대 위주로 재편됐다. 스타들 대부분이 2~3년간 국내에서 뛴 후 해외로 진출하면서 중견선수들의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스타들의 컴백으로 일본처럼 KLPGA 투어에서도 신구 세대간의 경쟁구도가 기대된다.

정일미는 2004년 미국 진출 이전 국내에서 8승을 올린 베테랑이다. 1999년과 2000년 KLPGA 투어 상금여왕을 차지하는 등 국내 여자골프 1인자로 군림했다. 김주미 역시 KLPGA 투어에서 큰 획을 그었던 주인공이다. 2003년 프로 데뷔 첫째 대상과 신인상, 상금여왕을 싹쓸이하며 초대형 투기의 신평탄을 쏘아 올렸다.
김주미를 시작으로 송보배, 신지애 등이 거물신인의 계보를 이었다.
한때는 국내에서 이름을 날린 간판급 스타들이 시드 순위에 출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까마득한 후배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또 시드 순위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올해부터는 시드 순위전이 미국의 Q스쿨처럼 지옥의 레이스로 펼쳐지는 것도 컴백 스타들에게는 부담이다. 지난해까지는 예선 없이 4라운드 72홀 경기를 통해 상위



50명에게 풀시드가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예선 2라운드(36홀) 후 상위 100명이 본선 3라운드(54홀)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총 90홀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관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예선통과자 100명과 KLPGA 시즌 상금랭킹 51~70위 선수와 함께 경쟁해야 한다.

본선에서 최소한 50위안에 들어야 내년 정규투어 출전이 보장된다.

홍진주와 임성아는 지난해 시드순위를 10위와 25위로 통과했다.

반면 LPGA 출신인 조영아는 120위에 그쳐 탈락했다.

한명현 KLPGA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뛰던 선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많아졌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여자골프대회의 상금이 높아지고 대회수도 줄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전미정 최혜용 최혜정 ‘선두 어깨동무’

■ 하이트컵 챔피언십 1R

일본여자골프 투어에서 뛰고 있는 전미정(28·진로재팬)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메이저대회 제11회 하이트컵 챔피언십(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 첫날 공동 선두로 나섰다.
전미정은 14일 경기도 여주 블루해런 골프장(파72·6582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1개, 버디 5개를 골라내 4언더파 68타를 쳐 최혜용(20·LG), 최혜정(26·현대스위스저축)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2003년 파라다이스 인비테이셔널 이후 7년 만에 국내 대회 우승 기회를 잡았다.
올 시즌 우승이 없는 서희경(24·하이트)

은 3언더파 69타를 쳐 1타 차 공동 4위로 우승경쟁에 뛰어들었다. 상금랭킹 2위 안신애(20·비씨카드)와 유소연(20·하이트)이 2언더파 70타로 공동 8위다. 상금랭킹 1위 양수진(19·넵스)은 1오버파 73타 공동 26위로 부진했다.

한편 같은 날 전남 해남 파인비치골프장(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투어(KGT) 한양 수자인 파인비치오픈(총상금 3억원) 1라운드에서는 김대섭(29·삼화저축은행)과 김대현(22·하이트)이 7언더파 65타를 쳐 공동 선두로 나섰다. 김대섭은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아내는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고, 김대현도 버디 8개에 보기는 1개로 막아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끝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김대현의 명품 샷 14일 해남 화원 파인비치골프장에서 열린 한양 수자인-파인비치 오픈 1라운드에서 김대현이 9번홀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KGT

한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 무산

스폰서 부재로 무산 위기를 맞았던 한일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이 결국 취소됐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올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이 타이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취소됐으며 내년 일본에서 다시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와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 마이니치 방송이 내년 타이틀 스폰서를 맡겠다고 신청서

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1월 일본으로 건너가 구체적인 장소, 조건 등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KLPGA는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스폰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여자골프대항전 스폰서십처럼 상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민성기 기자 nin3654@donga.com

“박지성 없는 경기장은 안가!”

인조이 EPL

박지성 올시즌 경기출전 금감
인근거주 5만여 초팬 발길 뚫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500여 명의 한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5만여 동북아시아인들에게도 박지성(사진)은 가장 인기 있는 유명 인사다.
맨체스터 지역 중국인 모임에서는 여전히 맨유 경기가 있는 날이면 단체 관람을 요청하는 주민이 꽤 많고, 일본인들도 맨유 경기가 있는 날이면 삼삼오오 짝지어 경기장을 찾는다.

물론 맨유 선수단 모두가 각광을 받는 게 아니다. 선수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박지성을 꼽는다. 대표팀으로 시선을 돌리면 중국과 일본 모두 서로 이겨야만 하는 숙명의 라이벌이지만, 이곳에서 이들은 모두 박지성을 응원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티켓을 구매하지 못한 친구들은 주로 학교 근처나 경기장 인근 펍(Pub)에서 맥주를 마시며 경기를 관람한다. 경기장의 박진감 넘치는 합성과 응원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몇몇 펍들은 대략 200여 명을 수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박지성을 응원하기 위해 펍을 찾는 동북아시아인들이 자주 보인다.

맨유 마케팅 담당자는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동북아시아인들이 박지성이 이적한 2005년 이후부터는 그 수가 크게 늘었다. 박지성이 부상 중일 때는 거의 안 보이기도 한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공식 티셔츠 판매처에서도 박지성의 백범버(13번)를 새긴 맨유 셔츠를 입은 아시아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의 인기를 반영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올 시즌 이들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장애물이 생겨났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경기를 관람하러 갔건만 정작 보고 싶었던 박지성의 플레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맨유 스타디움 투어 담당자 켈리 와이슨은 “요즘 경기장 투어하는 asi안들의 수가 줄었다”고 한다.

얼마 전, 맨유TV 홈페이지에는 박지성의 인터뷰가 게재됐다. 여기서 제임스 터크 기자는 박지성에 올 시즌 스스로의 활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지만 명확했다.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다. 과로나 부작용으로 인한 이유보다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다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선수들은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국가대표팀(한일전) 일정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터닝 포인트’는 없었다. 박지성은 소득 없는 국내 스케줄을 보내고 돌아왔다. 수술을 받았던 무릎 부위 통증으로 일본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분위기 전환에도 실패했다. 스스로도 “휴식이 언제까지 부여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수많은 동북아시아 팬들이 박지성의 출전을 간절히 바라지만 아직 밝은 내일을 예고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래저래 박지성에게도 맨유를 응원하는 아시아 팬들에게도 인내심이 필요한 2010년 연말이다.

맨체스터(영국) | 박영오 통신원

선두 강릉시청 무패행진 이어갈까

오늘 내셔널리그 후기 9R

강릉시청이 내셔널리그 후기 1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6승1무(승점 19)로 대환생명 2010 내셔널리그 후기 선두를 달리는 강릉시청이 16일 인천 문학보조구장에서 13위 인천 코레일(1승3무4패·승점 6)과 9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역대 전적에선 강릉시청이 9승6패로 앞섰지만 인

천 코레일은 강릉에서 치른 전기 원정에서 3-2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더욱이 인천 코레일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팽팽한 접전이 예고된다. 전국체전 정상을 밟은 5위 천안시청(4승2무2패·승점 14)은 15일 3위 충주 험멜(5승2패·승점 15)과 홈경기를 펼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콤팩트 뉴스

이승훈, 대한민국체육 경기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자로 이승훈을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승훈은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획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하는 체육훈·포장 수상자로 유도 최민호, 양궁 윤옥희와 구자청 감독, 사격 진종오와 변경수 감독 김신일 코치, 불링 박명환 코치, 빙상 박혜린 강윤민

과 송석우를 코치 등 10명을 선정해 최고 영예인 청룡장을 수여했다.

엄천호,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 1위

남자 쇼트트랙 엄천호가 14일 서울 노원구 태릉실내빙상장에서 끝난 2010~2011 쇼트트랙 국가대표선발전을 통해 순위 합산 4점을 마크, 전체 1위로 국가대표로 뽑혔다. 노진규, 성시백, 김병준도 태극마크를 달았다. 여자부에서는 김담민, 조해리, 양신영, 황현선이 대표팀에 승선했다. 이호석과 박승희는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남녀부 우승을 차지해 대표팀에 자동 발탁됐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랫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는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10년을 한결같이- 080 600 5858